

17세기 西厓 柳成龍家の 學風과 그 계승 양상

김학수*

차례

- I. 머리말
- II. 풍산류씨 家學의 연원과 계통
 - 1. 家學淵源에 대한 自家의 인식 : 『豊山柳氏家學淵源錄』을 중심으로
 - 2. 15-16세기 풍산류씨의 학문적 추세와 가학의 형성
- III. 柳成龍의 학문 경향과 西厓家學의 結晶
- IV. 17세기 류성룡가의 학풍 : 西厓家學의 계승과 정착을 중심으로
 - 1. 西厓家學의 계승과 전수 : 17세기 초중반
 - 2. 西厓家學의 정착과 확대 : 17세기 중후반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풍산 류씨 柳成龍 집안의 가학적 성격과 그 계승 양상을 17세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의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지금까지 조선 시대의 사상사는 학파 단위 또는 그것의 개체가 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家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16세기 중엽 이후 조선의 사상계가 學派 단위로 편제되어 감으로써 개인의 사상적 좌표 또한 학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과 학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가학적 요소에 대한 간과는 사상사 연구의 실질성과 풍요성을

* 한국학중앙연구원 실장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고는 退溪學派의 핵심 가문으로 일컬어지는 류성룡 집안의 가학이 어떤 맥락 속에서 형성이 되고,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떤 변화 및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가를 17세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西厓家學’이 17세기 조선의 사상계, 특히 영남학계와 어떤 관계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해명도 이 글의 또 다른 주안점이다.

주제어

豊山柳氏, 柳成龍, 西厓家學, 退溪學派, 心學, 經學, 大學, 柳軫, 柳元之, 柳世鳴, 柳後章

I. 머리말

이 글은 조선후기 영남 사림 및 학파에서 정치·사회·학문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풍산 류씨 서에 류성룡 집안의 학풍과 그 계승양상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류성룡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상·문학·군사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류성룡 집안의 사회·경제적 존재양상에 대해서도 일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상사 영역에서는 류성룡과 퇴계학과의 관련성을 비롯하여 양명학, 불교 등과 관련된 지식 체계의 다양성 등이 정밀하게 검토됨으로써 류성룡의 사상사적 위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 층 확장되었다.

본고는 일련의 선행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초점을 류성룡이라는 ‘개인’, 退溪學派라는 학문·사회적 ‘집단’보다는 ‘家學’에 맞추고자 한다. 즉, 학파적 틀 속에서 류성룡의 학문이 사회적으로 전파되고, 또 계

승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내부에서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수되었고, 또 그것이 ‘家學’ 또는 ‘家風’의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시대 ‘가’의 학문·지성적 존재양상을 이해하는 요체라 생각한다. 이 점에서 본고는 가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론적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서애가학’은 류성룡을 정점으로 형성된 일문의 학풍을 뜻하지만,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문의 학문적 연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II장에서는 류성룡 선대의 학문적 경향을 개관했다. III장에서는 서애가학의 골격을 이루는 류성룡의 학문 경향을 선행 연구에 바탕하여 정리하였으며, IV장에서는 17세기 서애가학의 전개 양상을 계승과 변화의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풍산 류씨 家學의 연원과 계통

1. 家學淵源에 대한 自家의 인식 : 『豊山柳氏家學淵源錄』을 중심으로

풍산 류씨 류성룡 집안의 가학의 흐름과 계통을 파악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문헌으로는 柳膺陸(1841-1921)이 1902년에 편찬한 『풍산류씨가학연원록』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 미간행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다.¹⁾

편찬자 류응목은 류성룡의 9세손으로 안동 하회 출신이다. 性理學·禮學을 비롯하여 曆法 및 服飾에도 조예가 깊은 학자였으며,²⁾ 1895년 乙未

1) 필자가 활용한 것은 풍산 출신의 柳成龍 門人 安聘壽 중가 소장본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古文書集成』43 - 安東 葛田 順興安氏篇 -, 701-731쪽에 영인·수록되어 있다.

2) 柳膺陸, 『鶴山集』 참조.

事變 당시에는 열읍에 격문을 돌려 일제의 만행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등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강했다.

류응목이 『풍산류씨가학연원록』을 편찬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문헌의 체제와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풍산류씨가학연원록』은 「가학연원세계도」와 이 세계도 실린 인물들의 ‘略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인물은 柳仲郢·景深·贊·仲淹에서 19세기 활동한 柳台佐까지 총 19명이며, 학문 세대로는 10세를 구성하고 있다. 류중영에서 柳台佐까지가 정확하게 10세인데, 이는 이 연원록이 풍산 류씨의 면면한 가학 계승의 양상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풍산 류씨 서애가학의 주요 계통도



㉠

柳澐 · 柳弼

㉡

柳宗春 · 柳尋春

㉢

柳台佐

즉 류응목은 풍산 류씨 일문을 ‘學問과 文章을 세세로 전하며 이를 家學化해 온 학자집안’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이 책을 편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풍산 류씨 내에서도 그가 주목한 것은 자신이 속한 류중영 계통이었고, 그 중에서도 류성룡 계열이 초점을 이루고 있었다. 비록 『풍산류씨가학연원록』은 류중영의 종제인 柳景深 · 仲淹, 재종제인 柳贊을 포괄하고 있지만 류중영 ⇒ 류성룡으로 이어지는 계통의 가학 연원 및 갈래를 정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뜻했다.³⁾

2. 15-16세기 풍산 류씨의 학문적 추세와 가학의 형성

西厓家學은 사실상 退溪學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李滉이라는 학문적 深淵에서 자신들의 가학이 발원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류성룡이 이황의 고제였음은 차치하고라도 류중영의 약전에 『朱子書節要』의 간행 사실을 특서한 것과⁴⁾ 『家學淵源世系圖』에서 孔子門下의 顔子

3) 류중영의 장자 柳雲龍 계열에서 『豊山柳氏家學淵源錄』에 수록된 인물은 류운룡과 그 증손인 柳世哲 · 世鳴 형제 등 총 3인에 지나지 않는다.

4) 『豊山柳氏家學淵源錄』 <立巖(柳仲鄂)>.

에 비견된 이황의 애제자 류증엄을 류증영과 병렬 배치한 것도 퇴계학과 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풍산류씨가학연원록』에 나타난 이러한 인식은 서애가학의 대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만 退溪學이라는 학문권력이 영남의 학계를 확고하게 장악한 조선후기의 상황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이점에서 필자는 이른바 ‘서애가학’ 속으로 유입된 학문적 물줄기를 좀 더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⁵⁾

풍산 류씨는 류성룡의 6대조 柳從惠 대에 이르러 문호를 크게 확충하게 된다. 류종혜는 당대 유수의 명가들과 혼척을 맺으며 인적 연계망을 확대해갔는데, 아들 柳洪과 선산 김씨(초취)·창녕 조씨(재취)와의 혼인은 그 단적인 예였다. 류홍은 군직인 좌군사정에 그쳤지만 선산 김씨 金瑄의 사위가 됨으로써 15세기 영남사림과의 핵심 인물인 金淑滋·宗直 부자와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류홍은 김숙자에게는 자형이 되고, 김종직에게는 고모부가 되었으므로 혼맥을 통해 사림과의 학풍을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류성룡의 아들 柳軫이 1631년 합천현감 재직 시에 야로현 소재 김종직의 사당에 官田을 지급하는 조처를 내린 것은⁶⁾ 尊賢을 넘어 세의에 바탕한 일종의 연원의식의 소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류종혜의 아들 류홍은 서반 하급직에 그쳐 관료로는 현달치 못했지만

5) 아울러 서애가학의 흐름 및 계승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유념할 것은 공간에 대한 이해이다. ‘西厓家門=安東 河回’라는 등식구조는 조선후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이다. 류성룡이 수학기를 비롯하여 일생의 상당 기간을 서울에서 보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경향은 5대조 류홍 이래의 집안의 전통이기도 했다. 5대조 柳洪, 증조 柳子溫, 조부 柳公緯이 서울에서 거주하며 수학한 사실은 류성룡 가문의 학술문화적 공간성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6) 柳軫, 『修巖集』卷3, <佔畢齋金先生廟前官田許給文>.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등 사회적 경험, 특히 都會文化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사람이었다.⁷⁾ 이는 당시 풍산 류씨가 서울생활을 유지할 만큼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하며,⁸⁾ 이런 전통은 류성룡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⁹⁾ 즉, 풍산 류씨는 안동에 기반을 둔 사족이면서도 조선 초기에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지식 문화적 정보를 체험·습득하여 사대부 내지는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을 쌓아가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현 밖에 따로이 農舍를 지었으며 林亭이 큰 들에 임해 있어 10여리를 내다 볼 수 있었다. 공은 봄여름과 가을의 대부분을 정자 위에서 농사짓는 것을 내려다 보았고,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그 앞을 지나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맞이하여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서 보내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다.¹⁰⁾

이처럼 류홍 대에 마련된 탄탄한 경제적 기반은 자손들의 사회학문적 성향에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했다.

풍산 류씨가 일군의 학자·관료를 배출하며 16세기 조선의 관계 및

7) 서울 생활을 하던 류홍은 벼슬하여 출세하면 명을 재촉한다는 점술가의 말에 따라 안동으로 낙향했다는 일화가 있다.『古文書集成』18-河回 豊山柳氏篇(IV), 『終天永慕錄草本』(柳成龍著) <柳洪條>

8) 류성룡의 증조 류자온의 경우 어머니의 외사촌인 安彭命을 따라 서울서 유학하여 진사시에 합격했고, 그 아들 류공작 역시 집안의 전통에 따라 서울에서 유학하다 영의정 鄭光弼의 추천을 받아 벼슬길에 나아가기도 했다.『古文書集成』18-河回 豊山柳氏篇(IV), 『終天永慕錄草本』(柳成龍著) <柳子溫條> 및 <柳公緯條>

9) 『西厓年譜』에 따르면, 류성룡은 13세 때 東學에서 『中庸』 및 『大學』을 강했고, 19세 때는 관악산에서 『孟子』를 학습했으며, 1564년 식년사마시 방목 및 1566년 별시문과 방목에도 거주지가 서울, 즉 ‘京’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수학기인 청소년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柳成龍, 『西厓年譜』 <甲寅>, <庚申>)

10) 『古文書集成』18-河回 豊山柳氏篇(IV), 『終天永慕錄草本』(柳成龍著) <柳洪條>.

학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柳沼의 현손인 柳仲郢(1515-1573) · 柳景深(1516-1571) · 柳贊(1520-1591) · 柳仲淹(1538-1571) 대였다. 4~6촌 형제간이었던 이들은 사림정치의 개막, 學派의 형성이라는 16세기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만들어갔다. 물론 이들 중에는 류중영 · 류경심처럼 학자보다는 관료적 성격이 짙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우 및 교유관계,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주자학의 이론적 심화가 이루어지던 16세기의 전형적인 학자 · 관료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¹¹⁾

- 11) 퇴계학의 유입을 통해 서애가학 발원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 류중영이라면 류경심은 문장과 경륜으로서 풍산류씨의 가계를 제고한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儒術에 바탕한 문장, 국익을 우선하는 經世家로서 정평이 있었는데, 류성룡 또한 그의 경제가적 식견에 대한 존경 및 계승의식을 시사한 바 있다.(金應祖, 『鶴沙集』 卷9, <龜村先生大司憲柳公神道碑銘> “公歿後十八年而南亂作 西厓先生歎曰 若使公在世 必能濟時艱 如我輩其能當大任乎”). 류중영과 류경심이 관료적 바탕 위에서 퇴계학을 비롯한 16세기 학계의 지식을 수용하여 일문의 학문적 줄기를 세웠다면 柳贊과 柳仲淹은 일생 학인의 길을 걸음으로써 풍산 류씨가 ‘학자집안’으로 일컬어지는데 기여한 존재들이었다. 류빈은 역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그의 회심작인 『易圖』는 柳成龍 · 柳元之 · 柳世鳴에 의해 그 학술적 의미와 가치가 줄기차게 부연 또는 보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理學에 바탕한 풍산 류씨 家學의 중요한 연원을 이루게 된다(柳贊, 『倦翁集』 卷2 附錄 <行狀> “西厓先生跋其尾 曰原於義文周孔邵朱之說 類次而疏淪之 以便考覽 又曰象數之原 性命之奧 天地陰陽造化不測之機 若指諸掌 柳拙齋元之有註解 柳寓軒世鳴有記疑 皆闡明先生隱而不發者 一家理學之盛 固不待後世之子雲堯夫”; <墓碣銘> “且於拙齋柳公元之易圖註解 及寓軒柳公世鳴易圖記疑 又可見家學淵源之有所傳授矣”). 한편 류중영은 가학연원도의 최상단에 입록된 4인[류중영 · 류경심 · 류빈 · 류중엄] 가운데 유일하게 퇴계문화에 정식으로 입문한 경우였다. 1571년 34세의 나이로 단명함으로써 학문적인 꽃을 피우지 못한 채 ‘孔門顏子’에 비견되는 예칭을 얻는데 그치고 말았지만 퇴계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류빈의 경우 퇴계학의 분위기를 수용하면서도 이황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면 류중영은 철저히 퇴계학의 틀 속에서 학문과 인격의 완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경향이 어떻든 간에 이들 두 사람을 통해 풍산 류씨는 퇴계학과 더욱 밀착될 수 있었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순수 학자를 배출하게 됨으로써 사환[柳仲郢 · 柳景深]과 학문[柳贊 · 柳仲淹]을 갖춘 집안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모는 류성룡을 통해 더욱 확충 · 발양되었는데, 전자가 ‘西厓經世論’의 발판이 되었다면 후자는 ‘西厓家學’의 중요한 줄기로 발전하여 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류성룡의 아버지였던 류중영은 퇴계학과 서애가학 접목의 階梯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류중영은 25세 때인 1539년(중종 34)에 문과에 합격하여 1573년 59세로 사망할 때까지 30여 년을 사환에 종사한 정통관료였다. 따라서 그는 性理學的 담론보다는 實事에서 經綸의 적용과 실현에 주력했고, 그의 이러한 행적은 아들 류성룡이 탁월한 經世家로 성장하는데 일정한 자양분이 되었다.

비록 류중영은 일생 관료로 살았지만 그 삶의 궤적은 16세기 사림계 학자들과 매우 닮아 있었다. 이 점에서 그의 관료적 삶은 영남학파에서 일가의 학문적 비중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문과 급제 이후 류중영은 1546년 경부터는 가족과 서울서 벼슬살이를 했고¹²⁾, 禹彥謙(퇴계문인 禹性傳의 아버지)·李滉(李滉의 형)·노수신 등과 교유하며 친분을 쌓게 된다. 특히 동갑이었던 盧守愼과는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교유하여 친교가 막역했던 나머지 1553년(명종 8) 노수신의 진도 유배시에는 적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기도 했다.¹³⁾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아들 류성룡에게 대물림되었고,¹⁴⁾ 후일 노수신은 ‘柳仲郢神道碑銘’

12) 그가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가서 처음 우거한 곳은 외증조 金系行의 고택이었다. 척연에 따른 끈끈한 관계망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古文書集成』18 - 河回 豊山柳氏篇(IV), 『終天永慕錄草本』(柳成龍著) <先考行年記> 丙午(1546).

13) 『古文書集成』18 - 河回 豊山柳氏篇(IV), 『終天永慕錄草本』(柳成龍著) <先考行年記> 癸丑(1553).

14) 노수신은 이연경의 사위이자 문인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탄수연원에 속하는 학자이다. 동시에 그는 이황의 문인록에도 이름이 올라 있어 퇴계문인으로도 일컬어지지만 이황이 그의 양명학적 성향을 비판한 것을 고려한다면 학문적 성향에 있어서는 이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영조연간 『陶山及門諸賢錄』을 抄定하는 단계에서 노수신의 퇴계문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런 인식에 기초한다.(『星湖李滉의 學問淵源-家學의 淵源과 師友關係를 중심으로』, 『星湖學報』1, 星湖學會, 2005, 43-44쪽). 오히려 노수신은 이언적에게 執贊하여 제자의 예를 갖추었고, 『心經附註』를 질문하는 등 활발한 問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를 이언적의 적통으로 보고 그 학통을 류성룡이 이어받았다는 주장도 있는데,(권오영, 『서애 류성룡 경학사상

을 지어 우의에 답하게 된다.

한편 류중영은 지방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교진흥에도 진력하였는데, 그런 자취는 書院의 건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류중영의 서원 건립은 단순히 흥학을 넘어 이황의 서원보급운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⁵⁾ 비록 그는 퇴계문인은 아니었지만 李滉과의 학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 윤룡과 성룡을 퇴계문하에 보내 수학케 하고, 1564년 황해감사 재임시에 이황의 대표적 저술 『朱子書節要』를 간행한 것이 그 단적인 근거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류중영은 1571년 기묘명현으로 일컬어지는 金淨과 宋麟壽 등을 제향하는 서원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有定書院이 바로 바로 그것이다. 당시 류중영은 청주 사림의 교학의 중심으로서 서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이황은 그의 주선과 일처리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¹⁶⁾ 이점에서 유정서원의 건립은 이황의 서원보급운동과 동일 맥락임을 알 수 있고, 이황과 류중영이 사제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유정서원은 1660년(현종 1) 莘巷書院으로 사액되었고, 文獻·遯巖·華陽洞書院 등과 함께 호서 기호학과권의 수원의 하나로 그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게 된다.¹⁷⁾

의 심학적 성향], 『서에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7, 58-61쪽) 매우 주목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15)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37-42쪽.

16) 『古文書集成』18-河回 豊山柳氏篇(IV), 『終天永慕錄草本』(柳成龍著) <先考行年記>

17) 당초 유정서원은 慶延·朴薰·金淨·宋麟壽의 제향처로 출범하였고, 그 뒤에 韓忠·宋象賢·李穡·李珣·李得胤을 추배함으로써 호서지역 기호학과권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李穡과 李珣의 추향은 宋浚吉·宋時烈 등 김장생 문인들의 기획하에 이루어졌다.(宋浚吉, 『同春堂集』 卷11, <與宋英甫(丙申)>). 신항서원의 위상은 禮式 및 重修 관련 문자를 찬술한 인물의 성격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金淨의 봉안문은 李珣, 韓忠의 봉안문은 李廷龜, 宋麟壽의 봉안문은 李得胤이 지었으며, <莘巷書院廟庭碑>와 <莘巷書院重修記>는 宋時烈이 지었다. 청주지역 노론 기호학과

사회적 교유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류중영은 중년 이후로 갈수록 이황과의 친연성이 깊어졌다. 두 아들의 퇴계문하 수학, 1564년 『주자서절요』의 간행,¹⁸⁾ 1571년 유정서원[莘菴書院]의 건립은 그 단적인 근거가 된다. 특히 『주자서절요』의 간행과 보급은 이황에 대한 학문적 계승을 내포하고 있고, 서원 건립은 이황과 사회적 행보를 함께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런 맥락에서 류중영은 퇴계문인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가운데 두 아들 윤룡과 성룡이 퇴계문하의 핵심으로 성장함으로써 풍산 류씨 ‘柳仲郢-雲龍·成龍집안’은 退溪學派의 근간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류중영은 류윤룡·성룡 형제가 퇴계학을 계승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인데, 바로 이런 점들로 인해 가학연원도의 핵심부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III. 柳成龍의 학문 경향과 西厓家學의 結晶

류중영과 그의 4촌 또는 6촌 형제간인 류경심·류빈·류중엄 등을 통해 망울을 맺은 풍산 류씨의 가학은 류중영의 두 아들 류윤룡·성룡 형제를 통해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류윤룡·성룡은 각기 1561년과 1562년에 이황의 문하에 입문하여 학문과 행의로서 두각을 드러냄으로써 일문의 학문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황과 류중영의 관계성, 당시 안동·예안 등 영남일원의 학문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들 형제의 퇴계문하 입문은 매우 자연스런 귀결이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은 兩宋의 후학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18세기 이후에는 李緯·蔡之洪·尹鳳九 등의 거물급 인사들이 서원의 운영을 주관하게 된다.

18) 『古文書集成』18-河回 豊山柳氏篇(IV), 「終天永慕錄草本」(柳成龍著) <先考行年記>.

었고, 이를 계기로 풍산 류씨는 한말에 이르기까지 퇴계학과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¹⁹⁾

류운룡의 경우 비록 많은 저술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행의, 특히 謙德으로서 사림의 추종을 받았다.²⁰⁾ 謙德에 바탕한 그의 학행은 조카 柳珍을 거쳐 從孫 柳元之에게로 전수되면서 서애가학의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²¹⁾

서애가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을 파악함에 있어 본맥과 근원이 되는 인물은 역시 류성룡이다. 류성룡은 1562년 이황의 문하에 수개월 간 머물면서 『心經』·『近思錄』 등을 수학했는데, 이황의 문인록인 『陶山門賢錄』에는 류성룡의 입문 과정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약관에 선생의 문하에 입문하자 선생께서 첫눈에 기이하게 여기고는 '이 아이는 하늘이 낸 사람이니 반드시 대유가 될 것이다'고 했다. 수개월을 머물면서 『心經』·『近思錄』 등의 서책을 읽었고, 이때부터 성리학에 潛心하게 되었다.²²⁾

이에 따르면, 류성룡은 탁월한 자질을 바탕으로 이황의 주목을 받으

19) 류성룡은 1620년 김성일과 함께 이황을 제향하는 廬江書院(虎溪書院의 전신)에 배향되었다. 여강서원은 안동지역 퇴계학파의 거점으로 예안의 陶山書院과 대등한 위상을 지녔다. 류성룡·김성일의 여강서원 배향은 조목의 도산서원 중향에 자극을 받은 측면도 있었지만 이로써 두 사람은 퇴계학파의 수문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김학수,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 17세기 초반의 廟享論議를 중심으로 -』,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朝鮮社會研究會, 1998, 469-471쪽)

20) 柳元之, 『拙齋集』 卷13, <謙庵先生文集跋>.

21) 柳元之, 『拙齋集』 卷13, <謙庵先生文集跋>.

22) (增補)『退溪全書』4, 『陶山門賢錄』 卷3, <柳成龍>. 이런 杼昂스의 표현은 류성룡의 行狀이나 年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西厓年譜』 卷3, 附錄 <行狀> ; 『西厓年譜』 卷2, <正宗甲寅>)

면서 성리학에 전념한 학자로 묘사되어 있지만 류성룡의 학문적 기호와 성향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²³⁾ 류성룡은 청년기 이래 象山·陽明學 등 유학의 다양한 계통을 학습·수용하였는데, 이 점에서는 류운룡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예컨대, 퇴계문하의 동문 鄭琢·趙穆 등이 류운룡·성룡 형제를 陸九淵의 형제에 비유하고, 金宇顛이 류성룡의 학문을 禪學으로 경계한 것은 그의 학문 성향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²⁴⁾ 아울러 류성룡은 상산·양명학뿐만 아니라 道家·醫學·兵書 등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었던 바, 제 학문을 수렵코자 했던 그의 학문적 편력은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

물론 21세 때 이루어진 이황과의 사승관계가 청년기의 이러한 학문적 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의 본체를 주자학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음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류성룡이 주자학적 가치를 독실하게 따르게 된 것이 이황의 사후이며 자신의 나이 30세를 전후한 때인 1571~1573년 경이란 점은 그의 학문 성향을 이해함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²⁵⁾

23) 권오영, 「서애 류성룡 경학사상의 심학적 성향」,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7, 33-36쪽.

24) 『西厓集』에는 승려들과 주고받은 다수의 시가 실려 있고, 거기에는 불교에 대한 호의적인 정서가 스며있는 것이 사실이다. 송재소는 류성룡의 친불 또는 호불적 정서를 불교에 대한 교리적 信從이 아니라 심신의 위로를 위한 탈출구로 해석하였다.(송재소, 「서애 류성룡의 시문학」,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7, 82-91쪽)

25) 『朱子書節要』의 학습에 열중하던 1571년 작품인 <記夢>이란 시의 서문에서 송나라 理學의 대가 朱熹·張栻·林用中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秋思>에서 程顥·程頤·張載 등 濂洛關閩의 학자들에 대한 강렬한 경모의 마음을 투영한 것은 30세를 전후하여 성리학에 깊이 천착한 단서로 규정할 수 있다.(송재소, 「서애 류성룡의 시문학」,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7, 69-71쪽)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류성룡은 상산학·양명학은 물론 도교·불교 등을 다양하게 섭렵하여 깊은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이황과의 사승, 특히 1573년 경에 학습한 『大慧語錄』, 『證道歌』 등이 陸九淵의 설과 유사함을 깨달은 뒤로는 주자학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류성룡은 상산학·양명학에 매몰된 것은 아니고, 비판적 수용을 했다고 하는 편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학문이든 비판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수용하고자 했던 그의 학문적 자세나 성향 또한 그의 학문적 지향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실 류성룡은 정치가·경제가·사상가·군략가 등 매우 다층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학문과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적인 경향에 있어서도 갈래와 계통, 기호와 취향이 워낙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류성룡의 학문적 경향 가운데 가학의 결정과 계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류성룡의 학문 경향 및 서애가학의 계승과 관련하여 유념할 요소는 ‘忠孝清白論’, 『大學』 등 經學의 중시, 思索主義, 心學의 중시, 求放心과 尊德性の 강조, 善事論, 詩敎·書敎를 통한 권학, 深思熟讀의 독서론 등으로 요약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요소의 계승 및 발전성을 중심으로 서애가의 학풍, 즉 서애가학의 발전 및 변화의 양상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V. 17세기 류성룡가의 학풍 : 西厓家學의 계승과 정착을 중심으로

1. 西厓家學의 계승과 전수 : 17세기 초중반

류성룡에 의해 틀을 잡은 ‘西厓家學’은 집안 내부의 순환적 사승관계를 통해 계승·발전되어 갔고, 때로는 상호 논변 또는 논쟁을 거치면서 보다 정련되어 갔다.

17세기 이후 여느 사대부가의 자제들과 마찬가지로 류성룡의 자손들도 영남학계의 석학들과 사승관계를 맺으며 학자적 성장을 기했다. 류성룡의 3자 류진이 장현광과 정경세의 문하를 출입한 것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특히 류진은 장현광의 고제그룹을 지칭하는 ‘여문10현’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입문은 서애·여헌 두 문하 소통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²⁶⁾

류진이 장현광과 같은 外傳을 통한 학문활동의 전개는 당시 사림사회의 관행과 흐름을 반영하는 것임에 반해 실질적인 학문은 철저히 가학을 통해 전수된 측면이 컸다. 즉 그는 아버지 류성룡을 父師하여 학문적 방법론과 지향을 배웠으며, 이런 전통은 柳元之(손자)·柳世鳴(증손)·柳後章(현손) 대를 거치면서 가학의 전수 및 계승의 중요한 맥락을 이루었다.

26)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표 1〉 집안 내부의 사승 : 서애가학 계승의 고리

- 柳成龍 ⇔ 柳 軫 : 부자간
- 柳成龍 ⇔ 柳元之 : 조손간
- 柳 軫 ⇔ 柳元之 : 숙질간
- 柳元之 ⇔ 柳世鳴 : 숙질간 [再從]
- 柳世鳴 ⇔ 柳後章 : 숙질간

한편 류진 대를 거치면서 서애가학은 주자학 중심의 학풍을 지향함으로써 心學이 강조되는 반면 육왕학적 요소는 잔재를 확인하기 어려울만큼 탈색되었고, 出보다는 處를 중시하는 출처관이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이런 정황은 적어도 아들 류진과 손자 류친지가 遺逸로 천거되어 지평·장령 등 산림직을 수행하고,²⁷⁾ 적어도 종통상으로, 류성룡 이후 최초의 문과 합격자가 8세손 류상조라는 사실에서도 방증이 된다.

아울러 류성룡 이후 서애가학의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경세론의 약화였다. 이것은 ‘學’의 심화와 ‘行’의 약화로 설명될 수 있으며, ‘處’를 중시했던 일문의 출처관과도 일맥상통하는 현상이었다.

물론 류성룡 이후 경세가를 지향한 인물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경제지재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존재는 류성룡의 장자 柳紉였다. 선조~인조조의 경세관료였던 李元翼을 연상케하는 면모를 지녔던 류여는 성리학을 비롯하여 天文·地理·陰陽·卜筮·醫藥·山水에도 해박했다.²⁸⁾ 특히 그는 諸葛亮과 范仲淹을 모범으로 삼았을 만큼 경제에 대한 포부가 컸지만²⁹⁾

27)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1999, 24-28쪽.

28) 柳軫, 『修巖集』 卷3, <伯仲兩兄遺事>.

29) 柳軫, 『修巖集』 卷3, <伯仲兩兄遺事>.

28세로 단명함으로써 그 뜻을 펼치지 못했다. 류여의 이러한 기질과 성향은 류성룡의 학자·관료로서의 두 가지 요소를 착실하게 계승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 여맥이 이어지지는 못했다.

柳仲郢·景深을 거쳐 柳成龍 대에 이르러 만개했던 經世論의 약화는 서애가학의 커다란 변화로 지적할 수 있으며, 李徽逸·玄逸 형제가 『洪範衍義』를 저술하며 國家經營論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金誠一 계통의 虎派와도 매우 대조되는 현상임에 분명했다.³⁰⁾

한편 서애가학은 활발한 家內 논쟁을 통해 학문적 견해 또는 주장을 정립해 갔다. 후술하겠지만 류원지와 류세명의 ‘求放心圖論辨’, 柳贊의 ‘易圖’ 대한 류세명의 疑義 제기, 류원지의 ‘倦翁易學圖說’에 대한 류후장의 질의·논변, 류세명과 류후장 사이의 주자 ‘赤心說’ 등에 대한 논변 등이 그 좋은 예가 된다. 또한 풍산 류씨 일문의 학자들은 독론을 통해 선유 및 그들의 학설에 대한 비평을 가하는 학문 방식을 이어갔다. 류원지의 ‘讀花潭集’, ‘讀栗谷集’, ‘讀旅軒集’, ‘讀愚伏集’과 류세명의 ‘讀拙齋集’이 바로 그것인데, 이런 경향 또한 서애가학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 西厓家學의 계승 및 傳授의 階梯 : 柳軫(1582-1635)

서애가학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목할 인물은 류성룡의 3자 류진이었다. 후일 그가 병산서원에 종향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류진은 서애가학의 교량적 역할을 넘어 서애학파의 계승자로 인식되었음을

30) 김학수, 「葛庵 李玄逸 研究-經世論과 學統關係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성윤, 「『洪範衍義』의 정치론과 군제개혁론 : 葛庵 李玄逸을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영남남인의 실학적 경제론」, 『대구사학』83, 대구사학회, 2006. ; 김성윤, 「『洪範衍義』의 토지개혁론과 상업론 : 갈암 이현일의 경제사상과 그 성격」, 『퇴계학논집』119, 퇴계학연구원, 2006.

알 수 있다.

류성룡과 류진의 학문적 관계는 父師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교육과 학습의 마디마디에 류성룡이 적극 관여하고 있었다. 류진은 10세 되던 1591년 김치중에게 글을 배웠고,³¹⁾ 1597년에는 노경임에게서 4서를 수학하면서부터³²⁾ 본격적인 학업에 들어갔다. 김치중과 노경임은 둘 다 서애문인이라는 점에서 학통상의 동질성이 있었고, 특히 노경임은 류운룡의 사위였으므로 류진과는 4촌의 척분이 있었다.

류진의 노경임 문하 입문은 철저히 류성룡의 기획 하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그는 평소 류성룡이 강조했던 경전, 특히 사서를 수학하며 학문의 근기를 강화하게 된다. 노경임은 서애문인이기에 앞서 장현광의 생질이자 문인이었고, 사서를 강조했던 여헌학의 정수를 잘 체득한 학자·관료였다.

景閱이 『心經附註』의 의심스럽고 잘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선생에게 질문하니, 선생께서는 '蒙學의 선비는 읽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의 학자들은 고원한 것을 좋아하여, 『심경』과 『近思錄』이 아니면 남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오직 남의耳目에 별다르게 보이려고만 한다. 그리하여 애당초 몸을 닦는 큰 방법과 德에 들어가는 규모가 四書와 『小學』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할 만하다. 배움은 간절하고 가까워야 하며 범범하고 먼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니, 너와 같은 晚學은 『論語』와 『孟子』를 익숙히 읽는 것이 좋다.' 하였다.³³⁾

즉, 류성룡은 경학의 길잡이로서 노경임을 擇師하여 아들의 학업을 지도하게 했고, 자신 또한 서간을 통해 4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精思·熟

31) 柳軫, 『修巖年譜』 卷1, <辛卯>.

32) 柳軫, 『修巖年譜』 卷1, <丁酉>.

33) 張顯光, 『旅軒集』 續集 卷9, 附錄 <就正錄(門人趙任道撰)>.

讀할 것을 당부했다.

四書는 학문하는 자의 府庫이다. 이러한 근본이 없으면 다른 책을 읽어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盧校理(盧景任)를 스승으로 삼아 배우면서 정사·숙독하는 것이 좋겠다.³⁴⁾

위 인용문에 나오는 ‘四書’, ‘精思·熟讀’은 서애가학의 키워드의 하나이고, 시와 서간을 통한 교육, 즉 詩教·書教 또한 류성룡에 있어 자제 교육의 중요한 방편으로 자리하게 된다.

사실 ‘서애가학’ 내지는 ‘西厓家法’의 대체는 ‘충효’ 두 글자에 녹아 있었다. 1607년 류성룡은 임종 직전에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 자제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당부의 마음을 담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충효였던 것이다.

숲 속의 한 마리 새는 쉬지 않고 우는데
문밖에는 나무 베는 소리가 정정하누나
한 기운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우연이기에
평생 부끄러운 일 많이 한 것이 한스러울 뿐
권하노니 자손들아 이것을 꼭 삼가라
충효 이외의 다른 일은 없는 것이니라³⁵⁾

이후 충과 효는 서애집안의 가학 또는 가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정착되어갔고, 학문과 행신의 기본정신 또한 여기에 그 근본을 두고 있었다. 류진이 ‘忠孝一事論’을 강조하고, 증손 柳宜河가 종가의 당호를 ‘忠孝堂’으로 삼은 것은 그러한 원칙과 정신의 투철한 계승이었다.³⁶⁾ 류

34) 柳軫, 『修巖集』 卷1, <丁酉>.

35) 柳成龍, 『西厓年譜』 卷2, <有詩一首示子弟>.

36) 李裁, 『密菴集』 卷13, <忠孝堂記>.

진의 ‘충효일사론’은 ‘世臣論에 바탕한 논리였는데, 그 기저에는 류중영 ⇒ 류성룡을 통해 형성된 세신으로서의 공인의식이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일찍이 세신론에 바탕하여 사소한 관직조차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이황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成守琛의 출처론을 모범으로 삼고,³⁷⁾ 충과 효를 모두 보전하지 못한 초나라의 伍員(伍子胥)에 대해서는 극론을 가하며 경계로 삼은³⁸⁾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신론을 강조하며 가법을 정립해 나갔던 것인데, 조카 류원지가 기록한 <류진언행록>에는 세신의식의 일단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일찍이 나에게 ‘나는 世臣이므로 산림으로 자처하여 어영부영하게 지낼 수는 없다. 너희들도 모름지기 이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³⁹⁾

한편 류진은 퇴계학을 철저히 따르면서 자가의 가학적 전통을 세워 나갔다. 이것은 류중영·성룡과 이황과의 학연에 더해 당시 영남사림이 추구했던 학문적 방향성과도 일치했다. 류진이 아버지 류성룡을 통해 퇴계학을 계승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류성룡 또한 류진이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여겼을 정도로 류진의 학문적 환경에서 이황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이른바 ‘퇴계경모론’으로 요약되는 이황에 대한 계승의식은 『수암집』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1611년 지은 시(敬次退溪先生韻)에서는 퇴계학에 대한 강한 향념이 느껴졌고,⁴⁰⁾ 1614년 9월 조카 류원지를 대동하고 도산서원에서 시작된 청량산 유람

37) 柳軫, 『修巖集』 卷2, <答金以志 丙辰>.

38) 柳軫, 『修巖集』 『年譜』 卷2, <言行錄>.

39) 柳軫, 『修巖集』 『年譜』 卷2, <言行錄>.

40) 柳軫, 『修巖集』 卷2, <敬次退溪先生韻三首(辛亥)>.

은 퇴계학의 자취를 찾아가는 순례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도산서원에서 정학을 강명하여 예의의 문명을 일으킨 이황의 학문적 공로에 대해 무한한 경모의 마음을 표현함은 물론 1562년 당시 입문하여 『심경』·『근사록』을 학습하는 한편으로 이황과 함께 단사협을 유람했던 아버지 류성룡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황⇒류성룡으로 이어지는 학통의식을 우회적으로 표출기도 했다.⁴¹⁾ 위에서 언급한 시와 유람기가 이황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지방관 재임 때마다 열정을 보인 예안향약의 보급은 퇴계학의 구체적 적용과 확산의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예안향약의 보급활동은 1618년 상주로 이거하면서부터 구체화되었고,⁴²⁾ 1623년 봉화현감 재직시와 1632년 합천현감 재직시에는 향풍 교화의 수단으로서 예안향약을 시행했던 것이다.⁴³⁾ 특히 합천현감 재직 때에는 조식의 연원록인 『山海師友淵源錄』의 편찬자이자 17세기 중반 남명학파의 중건 학자였던 朴綱을 매개로 하여 향약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남명학파권을 대상으로 한 퇴계학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특별했다.⁴⁴⁾

서애가학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역시 류진이 류성룡으로부터 어떤 학문적 영향을 받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전수되어 갔는가에 있다.

김치중과 노경임에게서 수학하던 류진이 류성룡에게 직접 수업한 것은 18세 때인 1589년이었다. 이때 그는 중용을 비롯한 경전 공부에 열중하는 한편 류성룡으로부터 경전 해석에 있어 선유들의 오류까지도 세세

41) 柳軫, 『修巖集』 卷4, <遊清涼山日記>.

42) 柳軫, 『修巖集』 「年譜」 卷2, <戊午>.

43) 柳軫, 『修巖集』 「年譜」 卷2, <癸亥> 및 <壬申>.

44) 柳軫, 『修巖集』 卷2, <與朴伯和綱>.

한 가르침을 받았다.⁴⁵⁾ 기록상 두 부자 사이의 직접적인 학문 수수관계는 사실상 이것이 전부이지만⁴⁶⁾ 이후에도 류성룡은 사서를 통해 끊임없이 아들의 학업을 권면·독려했다. 그때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사서에 바탕한 근기의 배양과⁴⁷⁾ 본원에 충실하는 학자적 자세였다.⁴⁸⁾

경신년(1560, 명종 15) 겨울에 『孟子』 1권을 가지고 관악산에 들어가서 두어 달 동안 20여 차례 읽고 나서야 겨우 첫머리부터 끝까지 읽 수가 있었다. 산에서 내려와 서울로 오는 동안 말 위에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梁惠王章에서 盡心章까지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 비록 그 정밀한 뜻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군데군데 마음에 이해가 되는 곳이 있었다. 그 이듬해 하회에 와 있으면서 『春秋』를 30여 번을 읽고선 이때부터 조금씩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어 다행히 급제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 좀 더 공부를 하여 사서를 백여 번 읽었더라면 하고 언제나 한이 된다. 만일 그렇게 하였다더라면 언은 바가 기필코 오늘같이 보잘 것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늘 너희들에게 사서를 읽으라고 말한다.⁴⁹⁾

이러한 詩敎 및 書敎는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되었는데, 1607년 정월에는 마음잡는 操存工夫를 강조한 許衡의 시를 써주면서 일생토록 체념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다.⁵⁰⁾

결국 류성룡은 사서를 정사·속독하여 근본을 배양하고, 허위를 배격하여 마음잡는 공부에 전념하는 것을 학문의 요체로 삼았던 것이고, 류진은 그런 가르침과 당부를 착실히 계승함으로써 서애가학의 틀을 확립할

45) 柳軫, 『修巖集』 「年譜」 卷2, <己亥>.

46) 류진은 1606년 류성룡이 퇴관하여 안동 西美洞에서 휴양할 때 중형 및 金延祖 등과 함께 일시 왕래하며 수업한 바 있다.(柳軫, 『修巖集』 「年譜」 卷2, <丙午>)

47) 柳成龍, 『西厓集』 卷12, <寄子軫>.

48) 柳成龍, 『西厓集』 卷2, <示兒輩讀書山寺二首>.

49) 柳成龍, 『西厓集』 卷12, <寄諸兒>.

50) 柳軫, 『修巖集』 「年譜」 卷2, <丁未>.

수 있었던 것이다.

류성룡 ⇒ 류진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연속성은 류진이 경전 중에서도 『대학』을 중시하여 ‘格致說’을 저술한 것,⁵¹⁾ 『맹자』의 求放心을 학문의 요체로 삼아 자제를 교육한 것,⁵²⁾ 마음잡는 일을 중시하여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있는 것은 쉽지만 마음을 잡는 일은 일각도 어렵다네(書靜坐終日易 操存一刻難)’라는 10자를 좌우명으로 삼은 것,⁵³⁾ 名實의 조화를 강조한 것에서⁵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가 아들 류천지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淸心·靜慮 및 靜處勤讀의 학습관은⁵⁵⁾ 류성룡의 靜思·熟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으며, 또 류성룡이 자제 교육법으로 자주 활용했던 시교·서교 또한 그를 통해 착실히 계승되어 갔다.⁵⁶⁾

이런 흐름 속에서 류진은 서애가학의 계승자를 넘어 이황 ⇒ 류성룡으로 이어지는 학통의 적전으로 인식되었고,⁵⁷⁾ 1662년(현종 3)에는 屏山書院에 종향되기에 이른다.⁵⁸⁾ 그리고 그를 통해 기틀이 잡힌 서애가학은 조카 류원지에게 전수되어 학문적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

2) 朱子學的 學風의 정착과 西厓家學의 발휘 : 柳元之(1598-1674)

류성룡 ⇒ 류진으로 이어지는 서애가학을 계승하여 17세기 중반 풍산

51) 柳軫, 『修巖集』 卷3, <格致說>

52) 柳軫, 『修巖集』 『年譜』 卷2, 附錄 <言行錄>.

53) 柳軫, 『修巖集』 『年譜』 卷2, 附錄 <言行錄>.

54) 柳軫, 『修巖集』 卷3, <雜錄>.

55) 柳軫, 『修巖集』 卷2, <答兒千之(甲戌)>.

56) 柳軫, 『修巖集』 卷2 <宗人冠禮時書贈>.

57) 柳元之, 『拙齋集』 <拙齋集跋>(柳宗春撰).

58) 洪汝河, 『木齋集』 卷7, <屏山書院修巖奉安文>.

류씨의 학풍을 이끈 사람은 류원지(1598-1678)였다. 류성룡의 장손인 그는 8세에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성장기의 대부분을 숙부 류진의 보호 속에서 보냈다. 류원지 자신의 표현대로, 그는 숙부 류진을 시종하며 학문 및 행신의 방법과 ‘文忠古家’의 장손으로서 지녀야 할 법도와 규범을 익혔다.⁵⁹⁾ 이런 과정 속에서 류원지는 자연스럽게 가학을 착실히 계승함은 물론 17세기 중반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류진과 류원지는 정리상 부자의 관계나 마찬가지로였다. 1612년 류진이 옥사에 연루되었을 때 호곡하며 가장 먼저 달려간 것도 류원지였고,⁶⁰⁾ 1614년 류진이 도산서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유람에 굳이 류원지를 대동한 것은⁶¹⁾ 퇴계학과 일원으로서의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배려였다. 이런 맥락에서 류원지는 ‘류진행장’ 및 ‘류진언행록’을 지어 숙부이자 스승의 학문과 행의를 기렸는데, 1662년(현종3)에 이루어진 류진의 병산서원 중향도 사실상 류원지가 기획·추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류원지의 학문은 크게 퇴계학의 독실한 수용과 계승, 류성룡·류진을 통해 틀을 다진 서애가학의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류원지에 있어 이황은 退讓을 미덕으로 삼아 성리학에 잠심하여 盛名을 이룬 존재였고, 거기에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이 곧 류성룡이었다.⁶²⁾ 출처의 엄정함이나⁶³⁾ 학문의 순정함에 있어 이황은 立心의 표준으로 인식되어 있었고,⁶⁴⁾ 이런

59) 柳元之, 『拙齋集』 卷13, <謙庵先生文集跋>.

60) 柳軫, 『修巖集』 卷4, <壬子日錄>.

61) 각주 86) 참조.

62) 柳元之, 『拙齋集』 卷9, <寄兒兼示孫兒丁酉>

63) 柳元之, 『拙齋集』 卷9, <示孫兒>.

64) 柳元之, 『拙齋集』 卷9, <寄兒兼示孫兒丁酉>.

인식은 자제들의 훈육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조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계학의 계승을 넘어 수호의 단계로까지 발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가 ‘독화답집’, ‘독율곡집’, ‘독여헌집’ 등의 독후감을 통해 주기적 학설 또는 친불적 학풍을 비판하고,⁶⁵⁾ 잡저인 ‘記聞’과 ‘독우복집’에서는 서경덕·이항·김장생·이수광 등의 학문을 강도 높게 비판한⁶⁶⁾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류원지는 퇴계학과 내에서도 이회일·이현일 등 학봉계열과는 차별되는 서에게열을 대표하는 ‘퇴계학수호론자’로 규정할 수 있다.

‘忠孝一事論’ 및 ‘經典府庫論’ 등으로 집약되는 서에게학의 특징적 요소는 류원지 대에도 충실하게 계승되고 있었다. 충효일사론의 경우 주로 시서를 통한 권면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 빈도가 류성룡·류진보다 현격하다는 점에서 시교·서교적 교육론은 류원지 대에 훨씬 더 확대·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 서에게문에 있어 충효는 일상적 수칙이었지만 류원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환기시키며⁶⁷⁾ 가법을 지켜나갔으며, 때로는 류성룡의

65) ‘讀花潭集’에서는 서경덕의 소견은 ‘迫狹’하여 후학을 그르치는 학문으로 규정했고, ‘讀栗谷集’에서는 이이를 賢人으로 인정하면서도 理氣說에 관해서는 완곡한 비판을 가했으며, ‘讀旅軒集’에서는 장현광의 理氣說이 이이의 설과 동일 機軸임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스승 류진이 장현광의 문인이라는 연원성을 고려하여 언사는 사뭇 정중한 차이가 있었다.(柳元之, 『拙齋集』 卷11, <讀花潭集>, <讀栗谷集>, <讀旅軒集>)

66) 서경덕의 학문은 苦心·極力하여 구한 면은 있으나 門路가 바르지 않아 參差함을 면치 못함을 지적했고, 李恒은 오로지 ‘氣字’만을 주장하는 자일 뿐이라고 일갈했으며, 김장생에 대해서는 이항의 分理氣二物說을 비판한 것을 재비판했다. ‘讀愚伏集’에서는 李睟光을 장자에 물든 인물로 규정하고 그 주장이 확산되어 학자들을 그르치게 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柳元之, 『拙齋集』 卷11, <讀愚伏集> ; 卷12, <記聞>)

67) 柳元之, 『拙齋集』 卷1, <示兒戊子>.

유훈과 류진의 가르침을 재삼 강조하며 충효의 정신을 주입하는데 골몰했다.⁶⁸⁾

내가 어릴 때 季父 지평공(柳紆)께 배웠는데, 공은 늘 '사람은 덕행으로 서 근본을 삼는데, 그러한 근본이 없다면 그 글이 비단처럼 화려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라고 가르치시면서 항상 충효·청백을 지켜 가전의 구업을 실추시키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 우리 집에 다른 물건은 없고, 오직 충효와 청백이 있을 뿐이다.⁶⁹⁾

일찍이 그가 아들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서모에 대한 예를 특별히 당부한 것은 충효의 구체적 실천에⁷⁰⁾ 다름 아니었다.

충효일사론은 善事論과 표리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류성룡의 유계에 바탕한 선사론은 류원지에 의해 '善事·善士論'으로 발전되었다. 류성룡은 임종 때 유시와 유계를 함께 남겼는데, 전자의 요체는 충효였고, 후자의 핵심은 선사론이었다.⁷¹⁾ '힘써 훌륭한 일을 생각하고[力念善事], 힘써 그 일을 행하라[力行善事]'라는 이 '八字遺誡'는 서애가의 學과 行의 守則처럼 받아들여졌다.

류원지에 있어 선사는 훌륭한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 고담대 언이나 허위·교만을 일삼지 않고 내실을 기하는 사람이었고,⁷²⁾ 자손들도 그런 선사가 되기를 갈망했다. 즉 류원지는 발군의 선비는 차치하고라도 자손들이 凡儒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善事論'에 바탕한

68) 柳元之, 『拙齋集』 卷1, <縣齋有懷示兒二首>.

69) 柳元之, 『拙齋集』 卷9, <寄兒兼示孫兒丁酉>.

70) 柳元之, 『拙齋集』 卷9, <寄兒輩別紙丁丑>.

71) 柳元之, 『拙齋集』 卷1, <縣齋有懷示兒二首>.

72) 柳元之, 『拙齋集』 卷9, <書寄子孫別紙>.

‘善士論’을 입론하여 이를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다.⁷³⁾

한편 사서 등 경전을 학문의 근본의 삼는 경전부고론과 정사속독 및 구방심의 공부론 또한 류원지 대에 한층 강조된 측면이 있었다. ‘處’를 지향하며 순수 학문에 전념한 그의 정신 및 학자적 환경이 ‘本源工夫’에 대한⁷⁴⁾ 열정을 지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류원지에 있어 본원공부는 求放心의 자세로 경전을 靜思熟讀하여 善士가 되는 것이었고, 이런 인식은 집요할만큼의 반복적 강조를 통해 자손들에게 주입되어갔다.

류원지는 학자에게 경전은 치병에 있어 의서와 같은 존재로 여겼고,⁷⁵⁾ 작문 또한 경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⁷⁶⁾ 다만 정사속독의 자세로 반복하여 음미하고⁷⁷⁾, 흡사 거울을 다듬는 정성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할 것을 강조했다.⁷⁸⁾ 경전 중에서도 그가 중시한 것은 소학 및 사서였고, 기 가운데에서도 대학과 중용을 특히 중시했는데,⁷⁹⁾ 이는 류성룡 이래 대학을 강조했던 가학의 뚜렷한 계승 양상이었다.

한편 류원지는 구방심을 위학의 선무로 삼았는데,⁸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철저히 류진의 가르침에 바탕하는 것이었고⁸¹⁾ 자손 교육에 있어서도 필수 요건으로 다루어졌다.⁸²⁾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류원지가 류진의 가르침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가학적 전통으로

73) 柳元之, 『拙齋集』 卷9, <示孫兒>. 意 世世無替”

74) 柳元之, 『拙齋集』 卷9, <寄示兒曹別紙丁亥>.

75) 柳元之, 『拙齋集』 卷13, <書讀書法冊後>.

76) 柳元之, 『拙齋集』 卷13, <書書傳諺解謄本後>.

77) 柳元之, 『拙齋集』 卷9, <寄子宜河書>.

78) 柳元之, 『拙齋集』 卷9, <寄宜河書>.

79) 柳元之, 『拙齋集』 卷9, <寄宜河書>.

80) 柳元之, 『拙齋集』 卷13, <敬題書冊置簿後>.

81) 柳元之, 『拙齋集』, 卷9, <書寄子孫別紙>.

82) 柳元之, 『拙齋集』 卷9, <寄示兒曹別紙丁亥> “孟子曰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보다 심화·정착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그런 요소는 그가 ‘收放心圖’를 저술함⁸³⁾ 물론 족질 류세명과 함께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인 것에서⁸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收放心圖’의 도설에서 ‘구방심’을 학문의 要功으로 표현한 것에서⁸⁵⁾ 보듯 ‘구방심’은 류원지 대를 거치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며 서애가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정착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류원지는 류진이 강조했던 愼獨의 자세와 ‘마음가짐[操存]’ 공부를 학자의 긴요처로 삼아 자제들을 교육했고,⁸⁶⁾ 1621년에 지은 ‘명설’에서는 實을 강조하는 학문적 방향을 담았는데,⁸⁷⁾ 이 또한 허명을 배격하고 내실을 추구했던 류진의 실용적 학풍을 계승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難進易退의 출처관을 지녀 출사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자제들이 논인·논사하거나 조정의 득실을 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⁸⁸⁾ 하지만 그는 자손들이 출사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고, 1666년과 1671년 아들 의하가 출사했을 때는 근신과 염결에 바탕한 처관 및 임관의 요법을 훈계하기도 했다.⁸⁹⁾ 아울러 중제 류천지가 공릉참봉으로 부임할 때는 류성룡의 유훈을 거론하며 공인으로서의 직무는 물론 본원의 공부에 힘쓸 것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⁹⁰⁾

이처럼 류원지는 독서법을 제정하고 학문의 치침을 마련하여 이를 시

83) 柳元之, 『拙齋集』 卷11, <收放心圖并說>.

84) 柳元之, 『拙齋集』 卷9, <答族姪爾能別紙 論收放心圖>.

85) 柳元之, 『拙齋集』 卷11, <收放心圖并說>.

86) 柳元之, 『拙齋集』 卷2, <寄長兒 辛亥>.

87) 柳元之, 『拙齋集』 卷11, <名說辛酉>.

88) 柳元之, 『拙齋集』 卷9, <寄示兒輩別紙>.

89) 柳元之, 『拙齋集』 卷9, <寄宜河書>, <寄宜河書(丙午)>, <答宜河別紙(辛亥)>.

90) 柳元之, 『拙齋集』 卷12, <送從弟子強赴恭陵寢郎序>.

교·서교의 방식으로 가르침으로써 서애가학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서당을 건립·운영하고⁹¹⁾ 도서를 대대적으로 비치함으로써⁹²⁾ 서애가학의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갔던 것이다.

아울러 종제 류천지, 재종질 류세명 등과 학문을 토론하며⁹³⁾ 일가의 학문적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키는 한편으로 1672년(현종 13)에는 류빈의 역도에 해설[倦翁贊易學圖解]을 붙임으로써⁹⁴⁾ 풍산 류씨의 가학연원에 대한 계승 및 발양의식을 천명하게 된다. 특히 이 도해는 재종질 류세명으로부터 心學의 핵심을 담아낸 업적으로 평가받기도 했다.⁹⁵⁾

지금까지 언급한 류원지의 학자적 자세와 학문적 지향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당부와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보인다[示兒輩]’라는 시와 ‘壁上自警文’에 응집되어 있다. ‘아이들에게 보인다[示兒輩]’는 敦睦·自守·涉世·山居·自責·勸學·讀書·自省 등 총 9수로 구성되어 있으며,⁹⁶⁾ 서애집안의 가법 및 가학의 요체를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류원지의 친필로 전해오던 이 시는 현종연간 재종질 류세철이 손수 정사하여 詩板으로 새겨 인출했고,⁹⁷⁾ 그 후 1677년(숙종 3) 역시 재종질 柳世鳴이 이를 병풍으로 꾸며 일문의 진장으로 남기게 된다. 이 때 그는 이 시를 풍산류씨의 家範과 心學의 요체를 담은 유림의 모범이자 일가의 寶畜으로 평가하였다.⁹⁸⁾

91) 柳元之, 『拙齋集』 卷12, <河回書堂呈府伯文>

92) 柳元之, 『拙齋集』 卷13, <敬題書冊置簿後>, <又(敬題書冊置簿後)>.

93) 柳元之, 『拙齋集』 卷9, <與堂弟子強千之別紙> 및 答族姪爾能別紙>, <答爾能別紙>, <重答爾能別紙>.

94) 柳元之, 『拙齋集』 卷11, <倦翁贊易圖解壬子>.

95) 柳世鳴, 『寓軒集』 卷3, <上拙齋先生>.

96) 柳元之, 『拙齋集』 卷2, <示兒輩>.

97) 柳世鳴, 『寓軒集』 卷6, <拙齋先生示子孫詩跋>.

98) 柳世鳴, 『寓軒集』 卷6, <拙齋先生示子孫詩跋>.

‘壁上自警文’은 默·思·矯輕·警惰·克己 등 학자로서 경계해야 할 5가지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⁹⁾ 이 또한 일가의 치심·처세의 준칙이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특히 경솔함을 경계한 ‘矯輕’ 조항은 류세명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⁰⁰⁾

이런 맥락에서 그는 류원지는 류성룡 ⇒ 류진으로 이어지는 서애가학의 계승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짐은¹⁰¹⁾ 물론 홍여하·이휘일·이현일 등 17세기 중후반 퇴계학과를 대표하는 학자로 인식되었는데, 가학적 측면에서 그의 학문을 가장 착실히 계승한 인물은 재종질 류세명이었다.

2. 西厓家學의 정착과 확대 : 17세기 중후반

1) 西厓學의 변호와 心學의 家學化 : 柳世鳴(1636-1690)

서애가학의 계통과 특징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찬된 『풍산류씨가학연원록』에서 류성룡의 자손이 아니면서 가장 두드러진 학문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柳世鳴(1636-1690)이었다.

류세명은 류운룡의 손자 柳元履의 6자로 1660년(현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1675년(숙종 1) 문과에 합격하여 사관·이조정랑을 거쳐 1689년 기사환국 뒤에는 지평·교리·헌납 등 3사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그는 학식과 문장이 뛰어나 弘文錄에도 수록될 만큼 엘리트 문신으로 촉망을 받았다. 이런 이력을 고려한다면, 그의 학자·관료적 삶은 종종조 류성룡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류원지는

99) 柳元之, 『拙齋集』 卷12, <壁上自警文>.

100) 柳世鳴, 『寓軒集』 卷5, <讀拙齋先生文集>.

101) 柳元之, 『拙齋集』 <拙齋先生文集跋>(柳宗春).

그에게 世務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시사를 논한 류성룡의 疏筭 및 『軍門 膽錄』을 숙독할 것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¹⁰²⁾ 이는 류원지가 그에게서 經世家的 자질을 발견했음을 의미했다.

류세명은 16세 때 재종조 류원지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퇴계학과 서애 가학의 정수를 배웠다. 그는 류원지를 통해 충효가 서애가법 및 가학의 정수입임 체득했고,¹⁰³⁾ 이런 맥락에서 서애가학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류원지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¹⁰⁴⁾

무엇보다 그는 약 27년간 류원지의 문하에서 수학하는 동안 그의 학문과 행의를 체득함은 물론 문목·품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내의 토론문화를 촉진시키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다. 류원지와 류세명 사이의 학문토론은 주로 ‘구방심’ 및 ‘역학도해’를 주제로 전개되었으며¹⁰⁵⁾ 이 과정에서 류원지는 류세명의 학문적 정심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학업을 더욱 면려했는데,¹⁰⁶⁾ 류세명의 저술 ‘求放心箴’¹⁰⁷⁾과 ‘倦翁易圖記疑’¹⁰⁸⁾는 이러한 토론과 권면의 소중한 결실이자 가학의 심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었다.

그는 근본을 중시하는 류원지의 학풍에 따라 본원공부에 열중했고,¹⁰⁹⁾ 사환과 詞役의 외중에도 성리학에 침잠하여¹¹⁰⁾ 학자로서의 영역을

102) 柳世鳴, 『寓軒集』 卷5, <讀拙齋先生文集>.

103) 柳世鳴, 『寓軒集』 卷1, <伏蒙再從叔父拙齋先生賜示李觀海見贈一律 仍命附和 謹綴燕語 薄寓下懷>.

104) 柳世鳴, 『寓軒集』 卷1, <次拙修堂韻>.

105) 柳世鳴, 『寓軒集』 卷3, <上拙齋先生論求放心圖>, <稟目>, <上拙齋先生>.

106) 柳世鳴, 『寓軒集』 卷8, 附錄 <家狀>.

107) 柳世鳴, 『寓軒集』 卷6, <求放心箴>.

108) 柳世鳴, 『寓軒集』 卷5, <倦翁易圖記疑倦翁本註拙齋圖解>.

109) 柳世鳴, 『寓軒集』 卷8, 附錄 <家狀>.

110) 柳世鳴, 『寓軒集』 卷8, 附錄 <墓碣銘>(柳台佐撰).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그는 格致와 誠敬 그리고 操存의 공부에 더욱 공을 들임으로써 학문이 순정하고 행위가 독실한 학자로 평가되었다.¹¹¹⁾ 아울러 절친한 사우였던 이유장은 관료가 아닌 학자적 관점에서 그를 인식하고자 했고, 갈암학파의 고제 권두인은 그를 영남의 제일 인물로 일컫는데 주저하지 않았다.¹¹²⁾

한편 류세명에게 있어 류원지는 절대적인 존재에 가까웠다. 그는 류원지의 ‘인심도심설’과 ‘이기설’을 주자 이후의 정론으로 평가하는 한편 검덕에 바탕한 ‘경’의 공부를 ‘졸재학’의 핵심으로 파악했다.¹¹³⁾ 결국 그는 류원지 학문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주정지경’·‘정사역천’ 및 조존의 지결을 배웠고, 이를 체화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서애가학을 이해와 적용의 폭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¹¹⁴⁾ 그 학문적 수수관계가 이처럼 긴밀했던 탓에 류원지는 자신의 문자를 전수할 만큼¹¹⁵⁾ 그를 매우 신뢰하고 애중히 여겼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가 류원지의 시 ‘아이들에게 보인다[示兒輩]’를 병풍으로 꾸밈은 물론 ‘讀拙齋先生文集’, ‘拙齋先生祭門’, ‘拙齋先生墓誌’ 등 사문의 대표적 추양문자를 찬술한 것도 가학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근거한다. 후일 柳台佐가 ‘寓軒墓碣銘’에서 그를 陶山心學에 바탕을 둔 서애가학의 우뚝한 계승자로 언명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¹¹⁶⁾

111) 柳世鳴, 『寓軒集』 卷8, 附錄 <家狀>.

112) 柳世鳴, 『寓軒集』 卷8, 附錄 <墓碣銘>.

113) 柳世鳴, 『寓軒集』 卷5, <讀拙齋先生文集>.

114) 柳世鳴, 『寓軒集』 卷6, <祭拙齋先生文>.

115) 柳世鳴, 『寓軒集』 卷1, <輓拙齋先生>.

116) 柳世鳴, 『寓軒集』 卷8, 附錄 <墓碣銘>(柳台佐撰).

2) 가학의 보수적 정착 : 柳後章(1650-1706)

류세명 이후 풍산류씨 일문을 대표하는 학자로 떠오른 인물은 류후장이었다. 류원지의 3자 류만하의 아들인 그는 9세에 조부 류원지로부터 소학을 읽으며 학문의 대방과 행신의 도리를 배워나갔고,¹¹⁷⁾ 18세 때는 홍여하의 문하에서 주역을 수업했다.¹¹⁸⁾ 이 때 그는 홍여하로부터 학자적인 자질을 크게 인정받고 학문에 더욱 진력했다고 한다.¹¹⁹⁾ 수학기에 류후장과 류세명의 학문적 관계성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류세명 사망시에 류후장이 지은 제문에 따르면, 일문으로서 매우 긴밀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執經受業’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¹²⁰⁾ 후술하겠지만 비록 두 사람은 사제관계는 아니었지만 줄재문하의 동문으로서 상호 종유관계에 있으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가학 및 영남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존재성은 매우 주목할 만했다.

류후장의 경우도 충효를 가법 및 가학의 원두로 인식했고,¹²¹⁾ 사서를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으며,¹²²⁾ 경을 강조하며 본원의 공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는¹²³⁾ 서애가학의 골자를 잘 체득했다고 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는 ‘精思熟讀’의 독서론,¹²⁴⁾ 류빈 ⇒ 류성룡 ⇒ 류원지 ⇒ 류세명으로 이어지

117) 柳後章, 『主一齋集』附錄 <行狀> ; <遺事>.

118) 홍여하는 류성룡의 문인 洪鏞의 아들로 金應祖·柳元之를 이어 17세기 중반의 서애학과를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었다.(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351-352쪽) 류후장이 홍여하를 사사한 것은 서애학과라는 학문 연원의 동질성에서 기인한다.

119) 柳後章, 『主一齋集』附錄 <行狀>.

120) 柳後章, 『主一齋集』卷2, <祭寓軒文>.

121) 柳後章, 『主一齋集』附錄 <墓誌>.

122) 柳後章, 『主一齋集』附錄 <遺事>.

123) 柳後章, 『主一齋集』附錄 <遺事>.

124) 柳後章, 『主一齋集』附錄 <墓誌>.

는 일가의 역학 전통 또한 잘 이어나감으로써¹²⁵⁾ 류원지에 의해 발휘된 서애가학의 실질적 계승자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¹²⁶⁾

무엇보다 그는 족속 류세명과 활발한 학문토론을 통해 가내의 학문적 분위기를 고조시킴은 물론 이를 통해 풍산 류씨 일문의 학문적 위상을 크게 높이게 된다. 이들 상호간에 이루어진 토론은 ‘심학’을 비롯하여 주자의 赤心說과 觀心說 등 그 주제가 다양했다.¹²⁷⁾

V. 맺음말

류성룡을 정점으로 하는 서애가학은 15세기 이래 풍산 류씨의 가문적 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온축되어 왔고, 류성룡이라는 뛰어난 학인을 통해 하나의 家學으로 결정되었다. 서애가학의 연원은 안동 하회에 일가의 터전을 마련한 류성룡의 6대조 류중혜로까지 소급할 수 있고, 이후 그의 아들 및 손자 대를 거치면서 김종직·김계행 등과의 척연을 통해 사림과의 학풍을 수용하며 학문적 근기를 배양해 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류성룡의 고조 류소는 처가(안동 권씨)를 통해 권보⇒이제현⇒이곡·이인복·백문보⇒이색⇒권근으로 이어지는 안동권씨 ‘陽村家學’을 간접적으로 계승하였는데, 이는 서애가학에 혼재된 사림성 및 훈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편 서애가학은 서울을 거점으로 하는 ‘都會文化’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5대조 류홍 이래 류성룡에게까지 지속된 서울 생활 및 유학의 양상

125) 柳後章, 『主一齋集』附錄 <遺事>.

126) 柳後章, 『主一齋集』附錄 <墓碣>.

127) 柳後章, 『主一齋集』<答三從叔萬軒先生>.

은 풍산 류씨가 도회문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는 배경이 되었다. 후일 류성룡이 다양한 학풍을 수렴, 집약하고, 국제적 안목을 지닌 경제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문화적 배경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서애가학의 후대적 적용은 안동·상주 등 영남지역이 주된 대상이 되지만 가학적 요소의 형성은 영남문화와 서울문화의 접목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류중영(1515-1573)과 그의 4촌~6촌 형제인 류경심(柳景深: 1516-1571)·류빈(柳賓): 1520-1591)·류중엄(柳仲淹: 1538-1571)의 등장은 풍산 류씨 가학의 일차적 형성을 의미했다. 류중영·경심의 경제가적 성장, 류빈·중엄의 학자적 면모는 풍산 류씨가 경제와 학문 두 측면에서 일정한 온축을 기하며 사림시대에 합류했음을 의미했고, 여기에 류중영·류중엄을 매개로 한 이황과의 교유 및 사승관계는 류씨 일문이 퇴계학의 본류로 편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서애가학의 본령인 류성룡의 학자·관료적 성장과 가학의 結晶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류성룡은 청년기 이래 상산·양명학 등 유학의 다양한 계통을 학습·수용하는 등 학문적 스펙트럼이 넓었지만 그의 학문의 본체를 주자학 또는 퇴계학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특히, 그의 학문적 지향과 요체 가운데 ‘忠孝清白論’, 『大學』 등 經學의 중시, 思索主義, 心學의 중시, 求放心과 尊德性의 강조, 善事論, 詩教·書教를 통한 권학, 深思熟讀의 독서론 등은 자손들에게 착실히 계승됨으로써 서애가학의 본체를 이루게 된다.

대체로 류성룡의 현손 대를 하한으로 하는 17세기 서애가학은 크게 계승과 전수, 정착과 확대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을 이끈 인물은 류진·류원지·류세명·류후장 등이었다. 이들은 집안 내부의 순

환적 사승관계를 통해 가학을 계승·발전시켜 나갔고, 논변 및 논쟁을 통해 학설을 정립해 갔다. 이 시기 서애가학은 주자학 중심의 학풍을 지향함으로써 心學이 크게 강조되는 반면 ‘出’보다는 ‘處’를 중시하는 출처관에 비중이 실림으로써 경세론의 약화가 수반된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17세기 초중반의 서애가학은 류진에 의해 家學의 계승 및 傳授의 階梯를 마련한 이래 朱子學的 學風의 정착을 강조했던 류원지에 의해 가학이 더욱 발휘된 시기로, 17세기 중후반은 류세명에 의해 心學의 家學化가 진전되고, 류후장을 통해 가학의 보수적 정착을 기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었다.

풍산 류씨 서애가문은 조선후기 여타 영남남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력이 두드러지는 점으로 인해 일가의 가풍이 학문보다는 사환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본고는 종전의 인식에 일정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하며, 서애가학에 대한 보다 전면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는 18~19세기까지를 포괄해야 하고, 지역적으로는 안동을 넘어 상주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고를 통해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원전

韓國學中央研究院編, 『古文書集成』18-河回 豊山柳氏篇(IV)

韓國學中央研究院編, 『古文書集成』43-安東 葛田 順興安氏篇-

李況, (增補), 『退溪全書』4
柳雲龍, 『謙菴集』
柳成龍, 『西厓集』
柳成龍, 『西厓年譜』
柳景深, 『龜村集』
柳贊, 『倦翁集』
柳軫, 『修巖集』
柳元之, 『拙齋集』
柳世鳴, 『寓軒集』
柳後章, 『主一齋集』
柳膺陸, 『鶴山集』
柳膺陸, 『豐山柳氏家學淵源錄』
金應祖, 『鶴沙集』
宋浚吉, 『同春堂集』
張顯光, 『旅軒集』
李栽, 『密菴集』
洪汝河, 『木齋集』

2. 논저

-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37-42쪽.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1999, 24-28쪽.
권오영, 「서애 류성룡 경학사상의 심학적 성향」, 『서애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7, 33-36쪽, 58-61쪽.
김학수, 「星湖 李瀾의 學問淵源 - 家學의 淵源과 師友關係를 중심으로」, 『星湖學報』 1, 星湖學會, 2005, 43-44쪽.
김학수,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 17세기 초반의 廟享論議를 중심으로 -」,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朝鮮社會研究會, 1998, 469-471쪽.
송재소, 「서애 류성룡의 시문학」,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7, 69-71쪽, 82-91쪽.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351-352쪽.

- 김학수, 「갈암 이현일 연구 - 경세론과 학통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성운, 「『홍범연의』의 정치론과 군제개혁론 : 葛庵 李玄逸을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영남남인의 실학적 경세론」, 『대구사학』83, 대구사학회, 2006.
- 김성운, 「『홍범연의』의 토지개혁론과 상업론 : 갈암 이현일의 경제사상과 그 성격」, 『퇴계학논집』119, 퇴계학연구원, 2006.

Abstract

The Academic Patterns of the Seoae Lyu Seongryong Family and the Pattern of Its Handover through Generations

Kim, Hak-Su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c leanings unique to the Seoae Lyu Seongryong family of the Pungsan Ryu clan and how such patterns were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ith a focus on the 17th century and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such patterns. To date, the history of theories in the Joseon era had been actively focused on schools of thoughts or specific historical figures while the academic patterns of each families have been somewhat neglected.

Since the mid 16th century, as the academic field in the Joseon era started to become re-organized around schools, it is true that an individual's thoughts and theories were closely related to such schools but the factor of academics within certain families, located somewhere between an individual and schools have largely been excluded from studies and thus have undermined the richness and practicality of research on theories during this era.

This paper analyzes how the academic pattern of the Seoae Lyu Seongryong family, known to have been at the center of the Toegye School, was formed, in which context it was formed, what its true nature was, and how it evolved throughout the 17th century. Moreover, the paper also focuses on how the Seoae academics around families were related to the schools of thought in 17th century Joseon and the Youngnam School, in particular.

Key Word

the Pungsan Ryu clan, Ryu Seongryong, academic leanings unique to the Seoae Lyu Seongryong family, the Toegye School, study of the mind-and-heart, study of the Classics, Great Learning, Ryu Jin, Ryu Wonji, Ryu Semyeong, Ryu Hujang

▪ 논문투고일 : 2014.7.1. 심사완료일 : 2014.8.12. 게재결정일 : 2014.8.12.